

미래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에 대한 사서 및 이용자 인식 조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and Library Users on the Future Direction of Public Library Development

김 성 희 (Seonghee Kim)**

이 승 민 (Seungmin Le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이용자와 사서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공공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사서와 이용자 모두 콘텐츠가 미래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들은 사서에 비해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공공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은 미래 공공도서관에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 정보기술의 도입보다는 콘텐츠의 이용이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도구의 마련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how users and librarians perceiv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future public library through a survey and suggested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future libra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librarians and users aware that contents were the most important aspect in the operation of future public libraries. In addition, users perceive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ervices higher than librarians, which shows that future public libraries require to develop and offer various information services. In contrast, the adoption of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y showed relatively low awareness of its importance in future public libraries. Therefore, the use of content and the provision of various channels and tools to satisfy information needs were perceived as more important than the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키워드: 공공도서관, 미래 도서관, 도서관 콘텐츠,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공간

Public library, Future library, Library content, Library service, Library space

* 이 논문은 2021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지원 연구용역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eonghee@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ableman@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3월 7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3월 7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3월 1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499-519,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1.499>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현재 우리는 디지털 기술이 일반화된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활동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진화는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구성된 D.N.A가 진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이슈로 언급되고 있다(정준화, 박소영, 2021).

D.N.A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의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도서관계도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이를 다양한 정보서비스에 적용해 오고 있다. 도서관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 업무의 신속성, 효율성을 확보해 왔으며, 이후 디지털 전환 시기를 거치면서 디지털 정보 및 데이터가 도서관계 진화의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수립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식정보의 유형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문헌정보학과와 도서관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등을 소개하고 이들을 도서관 업무와 정보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노영희, 2014; 한희정 외, 2018).

하지만 향후 사회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정보요구도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계에서는 이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적절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서관 운영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의 도서관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도서관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미래 도서관으로의 진화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나 빅데이터의 운용만으로는 그 가치를 이룰 수 없는 것이며, 모든 도서관의 근본인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사서를 통한 도서관의 전문적 운영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선행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들은 도서관 관종별로 다양한 정보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공공도서관 환경에서 정보기술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도서관으로의 진화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에서 사서와 이용자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공공도서관으로의 진화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라는 광풍 속에서 공공도서관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 어떤 방향에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미래 도서관에 대한 논의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화

두가 되고 빅데이터 처리 기법의 적용이 여러 분야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도서관계 및 문헌정보학계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미래 도서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들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최신 정보기술의 도서관 적용 가능성

정보기술의 진화가 사람들의 정보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도서관계에서도 최신의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연구에서는 정보기술의 도입 및 이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왔다.

노영희(2014)는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세대에 따라 다름에 주목하고,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첨단 기술의 도서관 적용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Y세대 이용자와 베이비붐 세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및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사용 현황, 서비스 요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김보영, 곽승진(2017)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메이커 스페이스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이를 도서관 환경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Gul과 Bano(2019)는 미래 도서관으로서 스마트 도서관을 소개하면서, IoT,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마이닝, AR 등과 같은 최신 기술들을 정의하고, 이들 기술이 도서관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도서관은 디지털 시민의식을 제공하는 기본

기반이므로 최신 정보기술은 도서관 환경에서 먼저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KIET(2016)는 미래 도서관으로의 진화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플랫폼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서의 Civic Tech를 소개하였다. Civic Tech는 다양한 집단의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개념이며, 이를 통해 여러 기관 및 커뮤니티의 집단지성 구축, 공공도서관의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구축하고 정보 리터러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Asemi와 Nowkarizi(2020)는 인공지능 및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s), 로봇과 관련한 도서관계의 동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미래 도서관의 핵심 요소로 기술, 자원, 서비스, 이용자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도서관 활동과 정보서비스의 개선이 가능하며, 로봇의 도입을 통해 서가 배열에서의 중복 작업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미래 도서관으로의 진화에는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다. 이는 사람들의 진화하는 정보요구를 적시에 적절하게 충족시키는데 있어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도서관이 사회의 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도서관의 근본적인 목적인 정보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보다는 최신 정보기술이나 설비의 도입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2 미래 도서관으로의 진화를 위한 사서의 역할

미래 도서관에서의 최신 정보기술 도입 관련 한 논의 이외에도, 미래 도서관에서의 사서의 역할을 주장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어 왔다. 박태연 외(2018)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의 미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와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박옥남(2018)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서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와는 다소 다른 측면에서, 노영희, 신영지(2021)는 로봇, 자율주행, 드론과 같은 기술이 도서관에 적용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최신 정보기술이 사서들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면서 사서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범위가 확장된 것이라 예측하였다.

이승민(2020)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는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 도서관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에서 논의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도서관 활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사서의 역할을 재고찰함으로써 도서관과 사서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British Library(2017)는 미래 도서관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하는 정보기술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보전

문가로서의 사서가 빅데이터 기반의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이의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프로젝트 수행이 필요하며, 기계학습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Suen, Chiu, Tang(2020)은 홍콩의 학술도서관에서 VR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VR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서의 부재라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도서관의 제한된 예산으로 인한 기기 및 설비의 확보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도서관계에서는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기반 정보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진화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와 함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서 교육이 미래 도서관에서의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3 미래 도서관의 발전방향

미래 도서관의 발전 방향이나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들은 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방향으로 수행이 되어 왔다. 이 가운데, 김홍렬(2017)은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운영의 핵심 요소인 시설, 경영, 인적자원, 예산을 중심으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과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희정 외(2018)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 관련 정책의 동향 및 추진 사례, 도서관계의 동향, 정보서비스 사례 등을 분석하고 PEST 분석을 수행하여 도서관계의 환경 요인의 현황 및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미래 도서관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김현오, 김용승(2020)은 현재까지의 국내 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최근 건립된 공공도서관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 및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도서관 건축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도서관 정책의 방향을 고려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최신 정보 기술을 도서관에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반면 해외에서는 도서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 가운데 Gul과 Bano(2019)는 미래 도서관의 유형 중 하나로 스마트 도서관을 소개하였으며, IoT, 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마이닝, AR과 같은 최신 기술들을 정의하고 이들이 도서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New Media Consortium(2017)은 미래 도서관과 관련한 논의에서 도서관계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언급하였으며, 도서관 이용자 및 도서관 공간 재구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학술 정보 조직 및 관리를 미래 도서관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여 향후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

CTG University at Albany(2018)는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미래형 도서관으로 진화하는 동향을 도출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진화가 지역주민들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서관 발전방향을 제언하였으며, 도서관에 접목할 수 있는 최신 정보기술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최신 정보기술을 도서관에 도입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기술이 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도서관은 계속 진화해야 하며, 새롭게 대두되는 다양한 정보기술을 접목하고 이용자들의 진화하는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정보환경과 도서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 및 사서들이 미래의 도서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특히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용자와 사서들이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설문항목 구성

미래 공공도서관으로의 발전 방향 정립은 여러 가지 측면이 반영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진화하는 최신 정보 기술의 운용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소장장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포괄한 모든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명제이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설비, 공간의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공공도서관 운영 방향을 콘텐츠, 정보서비스, 시설 및 공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외에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최신 정보기술, 사서의 역량을 추가하여 미래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들의 인식에 대해 5점 척도를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사서 집단과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설문항목은 노영희(2014), 박태연 외(2018), British Library(2017), CTG University at Albany(2018) 등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미래 도서관 발전방향의 주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사서와 이용자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대나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도서관으로의 진화는 사서와 이용자 모두의 인식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사서와 이용자 집단의 공통적인 인식에 중점을 두고 설문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관리자로서의 사서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필요

함을 반영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도서관 콘텐츠, 정보서비스, 공공도서관 공간, 최신 정보기술,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 공공도서관의 일반적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사항,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사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항목에는 미래 공공도서관에서의 사서 역량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Google 설문지를 활용하여 도서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사서 133명, 이용자 189명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 분석에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for Windows 25.0을 사용하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및 소속 도서관의 특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 도서관 사서 수, 근무연한 등에 따른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원 반복측정 분석(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과 대응 t 검증(Paired t-test)분석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서비스,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3.2 인구통계적 분석

사서 133명, 이용자 189명 등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사서의 경우

남성이 28명(21.1%), 여성이 104명(78.9%)으로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41명(30.8%), 30대가 39명(29.3%)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이 89명(66.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5년 미만이 59명(4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에서 10년 미만이 26명(19.5%), 10년에서 15년 미만이 18명(13.5%), 15년에서 20년 미만이 14명(10.5%), 20년에서 25년 미만은 16명(12%)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이용자는 총 189명이며, 남성이 59명(31.2%), 여성이 130명(68.8%)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68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65명(34.4%)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 74명(39.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교육직 또는 전문직이 56명(29.6%)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2〉 참조).

4. 분석 결과

미래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유지함과 동시에,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진화한 정보서비스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래 공공도서관의 운영은 도서관의

〈표 1〉 사서의 일반적인 특징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남성	28	21.1
	여성	105	78.9
계		133	100
연령대	20대	36	27.1
	30대	39	29.3
	40대	41	30.8
	50대	17	12.8
계		133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2	1.5
	2년제 대학졸업	7	5.3
	4년제 대학졸업	89	66.9
	대학원 졸업이상	35	26.3
계		133	100
근무경력	5년미만	59	44.4
	5년~9년	26	19.5
	10년~14년	18	13.5
	15년~19년	14	10.5
	20년~24년	16	12.0
계		133	100

〈표 2〉 이용자의 일반적인 특징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성별	남성	59	31.2
	여성	130	68.8
계		189	100
연령	20대	37	19.6
	30대	18	9.5
	40대	65	34.4
	50대	68	36.0
계		189	100
학력	고등학교 졸업	15	7.9
	2년제 대학 졸업	30	15.9
	4년제 대학 졸업	74	39.2
	대학원 졸업 이상	70	37.0
계		189	100
직업	교육직 또는 전문직	56	29.6
	사무 및 서비스직	43	22.8
	학생	16	8.5
	주부	31	16.4
	기타	43	22.8
계		189	100

기본 요소인 장서, 시설, 사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 확장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미래 공공도서관의 운영 방향을 크게 콘텐츠, 정보서비스, 시설 및 공간으로 설정하고, 이들의 세분된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 최신 정보기술, 사서의 역량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사서 및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4.1 미래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운영에 대한 인식

미래 공공도서관에서의 콘텐츠 운영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

래 공공도서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 공공도서관의 운영 가운데 콘텐츠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사서(M=4.65)와 이용자(M=4.77) 모두 최신 자료를 많이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을 미래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콘텐츠 운영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연령대별로 다양한 콘텐츠 확보'의 경우, 사서(M=4.36)와 이용자(M=4.54) 모두 중요한 미래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운영 방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확대 또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서와 이용자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콘텐츠 저장소(서고)를 축소하고 이용자들의 콘텐츠 창조 공간을 확장하는 운영 방향

〈표 3〉 미래 공공도서관의 콘텐츠에 대한 운영

설문 항목	사서 평균	이용자 평균
최신자료 확보	4.65	4.77
인쇄매체 대비 다양한 디지털 자료의 비중 확대	4.17	4.40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의 콘텐츠 확보	3.79	4.05
연령대별로 다양한 콘텐츠 확보	4.36	4.54
콘텐츠 저장장소(서고)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창작 및 공유 공간 제공	3.47	3.71
이용자의 요구를 정기적으로 반영하여 콘텐츠 구성	4.14	4.35
지역사회의 유산 민 향토자료 등을 수집	3.89	4.04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법 마련	4.29	4.39
콘텐츠를 관내·관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4.17	4.39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확대	4.29	4.56

에 대해서는 사서(M=3.47)와 이용자(M=3.71) 모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사서 집단과 이용자 집단 모두 미래 공공도서관은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래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통계적인 특징 및 도서관의 특징에 따라 콘텐츠의 중요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분석 결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미래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운영과 관련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821, p<0.05). Scheffe 다중비교 결과, 30대와 50대

사이에는 콘텐츠 중요도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50대 이상의 응답자가 30대 응답자에 비해 콘텐츠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2 미래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식

미래 공공도서관 역시 근본적인 목적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보서비스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존재 의미이며, 따라서 진화하는 사회환경, 정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미래의 진화에 대

〈표 4〉 연령대에 따른 콘텐츠 중요도에 대한 일원분산 분석표

	연령대별								F 값	사후검증 (Scheffe)
	20대(n=36)		30대(n=39)		40대(n=41)		50대(n=17)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콘텐츠에 대한 중요도	4.12	.56	3.96	.69	4.13	.60	4.47	.49	2.821	50대 >30대

* p<.05

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보서비스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미래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사서 집단에서는 '북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M=4.52)를 보인 반면, 이용자 집단에서는 '모바일 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은 점수(M=4.57)를 보이고 있어, 이용자와 사서의 정보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다양한 유형의 정보에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은 사서 집단과 이용자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사서 집단(M=2.36)과 이용자 집단(M=3.10) 모두 건강클리닉 서비스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예방의료 서비스, 혈압계 등 검사키트 대여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주

목할만한 부분으로 무료 클라우드 저장공간 서비스에 대해 사서는 낮은 점수(M=2.95)를 보인 반면, 이용자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M=3.97)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와 같은 디지털 및 웹 기반의 환경에서는 데이터 저장 공간을 공공도서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정보적, 사회적 역할 중의 하나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관리자로서의 사서 관점에서는 예산, 관리 인력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저장 공간의 운영 및 관리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인구통계적 특징 및 도서관의 특징에 따라 서비스의 중요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표 6> 참조).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 = -1.93$,

<표 5> 미래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에 대한 운영에 대한 기술통계

설문 항목	사서 평균	이용자 평균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 정보기술 이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	4.23	4.41
데이터, 로봇, 가상체험, 증강현실 등 최신키텐을 접목한 서비스 확대	3.83	4.11
다양한 배경의 이용자들에게 지식격차를 해소하는 서비스 제공	4.49	4.42
모바일을 이용한 서비스 확대	4.35	4.57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제공	4.37	4.53
이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클라우드 저장공간 제공	2.95	3.97
랩탑, 태블릿, 인터넷 사용을 위한 일정량의 데이터 제공 및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등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 제공	3.26	4.04
의료서비스, 혈압계, 라돈 등 검사키트 혹은 운동장비 등을 대여하는 건강 클리닉 서비스 운영	2.36	3.10
추천도서 및 자료에 대한 다양한 통계서비스 제공	4.30	4.30
북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4.52	4.30

〈표 6〉 성별에 따른 서비스 중요도에 대한 t-검정 분석표

	성별				t 값	사후검증(Scheffe)
	남성(n=28)		여성(n=10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	3.68	.66	3.91	.57	-1.93	여성>남성

* p<.05

p<0.1),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4.3 미래 공공도서관의 공간 운영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은 사서와 장서, 이용자가 정보를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 설비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공공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표 7〉 참조).

분석 결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위치 제공' 항목이 사서 집단(M=4.59)과 이용자 집단(M=4.62)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위치의 중요성이 시설 관련 측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장소 제공', '도서관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이 이용자 집단과 사서 집단 모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말에 열리는 행사지에

〈표 7〉 미래 공공도서관의 공간에 대한 운영

설문 항목	사서 평균	이용자 평균
학습, 회의공간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 제공	3.44	4.13
물리적 서고공간을 줄이고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 제공	3.32	3.67
다양한 문화 및 소통의 공간 제공	3.80	3.98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장소 제공	4.31	4.19
다양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제공	4.17	4.16
공간의 협소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	4.29	4.35
다양한 문화활동 및 창조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공간 제공	3.94	4.08
다양한 전시, 문화 서비스 제공	4.14	4.02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학교 등과 연계하여 이들 기관에 공유공간을 마련하여 도서관으로 이용	3.98	4.19
주말에 열리는 행사지에 임시 도서관 마련	2.78	3.56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 위치 설계	4.59	4.62
북카페 공간 제공	3.53	4.23

입시 도서관 마련은 사서 집단(M=2.78) 및 이용자 집단(M=3.56) 모두에게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구성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적,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영속적으로 상존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외에 미래 공공도서관에서의 북카페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집단과 사서 집단 사이의 의견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용자 집단에서는 북카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M=4.23), 사서 집단에서는 그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3.53).

공공도서관 공간 및 시설 운영 방향에 대해 인구통계적 특징 및 도서관의 특징에 따라 중요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8〉 참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령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4680, $p<0.05$). 또한 Scheffe 다중비교 결과, 30대와 50대 사이에 공간의 중요도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50대가 30대 보다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에 따라서도 공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으며(F=3.260, $p<0.05$), Scheffe 다중비교 결과 4년제 대학 졸업과 대학원 이상 졸업한 응답자의 공간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원 졸업 이상의 응답자가 4년제 대학 졸업 응답자에 비해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해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표 9〉 참조).

〈표 8〉 사서의 연령에 따른 공간 중요도에 대한 일원분산 분석표

	연령대별								F 값	사후검증 (Scheffe)
	20대(n=36)		30대(n=39)		40대(n=41)		50대(n=17)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공간에 대한 중요도	3.86	.66	3.66	.71	3.88	.64	4.27	.55	3.468	50대 >30대

* $p<0.05$

〈표 9〉 사서의 학력에 따른 공간 중요도에 대한 일원분산 분석표

	학력								F 값	사후검증 (Scheffe)
	고등학교 (n=2)		2년제 대학 (n=7)		4년제 대학 (n=89)		대학원 (n=35)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공간에 대한 중요도	4.08	1.23	3.86	.71	3.74	.70	4.15	.47	3.260	대학원 >4년제 대학

* $p<0.05$

또한 사서들의 근무경력에 따른 공간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781, p<0.05$). Scheffe 다중비교 결과 근무연한에 따른 공간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Turkey와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근무연한 5년~9년 사이 집단과 근무연한 20년 이상의 집단 사이에는 공간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근무연한이 20년 이상의 응답자가 근무연한 5년에서 10년 미만의 응답자보다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표 10> 참조).

4.4 미래 공공도서관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방향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보요구를 해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미래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미래 공공도서관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표 11> 참조).

분석 결과, 사서 집단($M=4.38$) 및 이용자 집

<표 10> 사서 근무연한에 따른 공간 중요도에 대한 일원분산 분석표

	근무연한										F 값	사후검증 (Scheffe)
	5년 미만 (n=59)		5-9년 (n=26)		10-14년 (n=18)		15-19년 (n=14)		20년이상 (n=16)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공간에 대한 중요도	3.79	.72	3.63	.60	3.92	.64	4.03	.54	4.27	.61	2.781	20년 이상 >4-9년

* $p<.05$

<표 11> 미래의 공공도서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방향에 대한 조사

설문 항목	사서 평균	이용자 평균
독서관련 프로그램 확대	4.29	4.45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 확대	4.38	4.56
지역주민의 법률, 건강정보 등의 프로그램 제공	3.13	3.68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제공	3.87	4.04
뉴스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등 최신 정보기술 사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24	4.13
데이터 분석 및 기초 통계 프로그램 제공	3.65	4.08
지역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제공	4.29	4.28

단(M=4.56) 모두에서 미래 공공도서관은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독서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제공에 대한 인식이 사서 집단 및 이용자 집단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보면, 미래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최신 정보기술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이들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소셜 이벤트 관련 프로그램의 제공은 사서 집단과 이용자 집단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소셜 이벤트 혹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제공 등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5 미래 공공도서관의 최신 정보기술 운영 관련 인식

현재의 도서관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도구들 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진화한 정보서비스 운영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최신 정보기술의 운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최신 정보기술의 도입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그리고 사서를 포함한 관리자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 공공도서관의 최신 정보기술 운용에 관한 이용자와 사서의 인식을 분석하였다(〈표 12〉 참조).

분석 결과, 인터넷, 컴퓨터,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주기적 업그레이드가 이용자(M=4.60) 및 사서 집단(M=

〈표 12〉 도서관 최신정보기술에 대한 인식

설문 항목	사서 평균	이용자 평균
모바일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서비스 제공	4.36	4.53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추천 서비스 등 개인화 서비스 제공	4.18	4.30
가상체험,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3.85	4.02
이용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저장공간 제공	3.04	3.94
멀티미디어를 생성, 편집, 공유할 수 있는 장비 제공	3.54	4.05
로봇을 도입하여 서가배치나 이용자 안내에 활용	3.38	3.79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화 서비스, 추천 서비스 제공	3.98	4.08
RFID의 적극적 활용	4.40	4.28
각종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데 블록체인 등을 활용	3.48	3.93
필요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3.08	3.99
도서관 내 컴퓨터, 인터넷 속도, 멀티미디어 저작 도구, 기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4.44	4.60

4.44)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RFID의 적극적 활용이 사서 집단(M=4.40)에서, 모바일 기술을 적용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이 이용자 집단(M=4.53)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반면 클라우드 저장공간의 제공에 대해서는 사서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M=3.04), 로봇을 도입한 서가배열 혹은 이용자 안내가 이용자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M=3.79).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도입되어 운영하고 있는 정보설비나 기기의 최신화에 대한 요구가 두 집단 모두에서 가장 필요한 미래 공공도서관의 운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용자 집단에서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모바일 환경이 공공도서관에 보다 많이 도입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로봇과 같은 기계적 커뮤니케이션보다는 휴먼 네트워크 혹은 휴먼 커뮤니케이션이 정보의 활용이나 공공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6 사서의 역량 관련 인식

미래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의 역량에

대한 설문은 사서 집단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래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 파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4.65), 도서관 소장자원 접근에 대한 지식(M=4.63),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에 대한 지식(M=4.60)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의 정보환경 진화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능력(M=4.53), 진화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제공 능력(M=4.47)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미래 공공도서관의 사서 역량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점으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모두 4.0 이상의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미래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미래의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사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확장 등 사서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서 집단

〈표 13〉 사서의 역량에 관한 인식조사

설문 항목	평균	표준편차
도서관 장서구성과 접근방법에 대한 지식	4.6	0.6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능력	4.5	0.7
가상체험, 증강현실, 메타버스 등을 이용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상상력, 비전, 개방성	4.07	0.9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수행 능력	4.5	0.7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 파악하는 의사소통 능력	4.6	0.6
개인정보보호 등 저작권에 대한 지식	4.6	0.7
메이커 스페이스, 빅데이터, 3D 프린팅,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변화를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및 지식	4.07	0.9

에서는 미래 공공도서관에서의 사서의 역량 가운데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도서관계에 적용되고 있는 최신 정보기술이나 데이터 처리 기법의 도입과는 별개로 이용자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같은 도서관만의 고유한 역할이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7 미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미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근본적인 명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진화하는 사회환경,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사람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크게 콘텐츠, 공간, 정보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분야는 미래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미래 공공도서관의 콘텐츠, 정보

서비스, 공간 가운데 콘텐츠와 관련한 분야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서비스 관련 분야, 공간 및 시설에 관한 분야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이에 콘텐츠, 정보서비스, 공간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중요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서 집단에서는 콘텐츠, 서비스, 시설에 따른 중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F=41.90,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콘텐츠, 정보서비스, 시설 사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 t-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한 결과, 콘텐츠와 정보서비스를 비교할 경우 콘텐츠가 정보서비스에 비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와 공간을 비교했을 경우에도 콘텐츠가 공간에 비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서비스와 공간에 대한 중요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표 14〉 콘텐츠,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인식조사

	사서	이용자
미래의 공공도서관 기능 중 콘텐츠 중요도	4.12	4.32
미래의 공공도서관 기능 중 서비스 중요도	3.87	4.17
미래의 공공도서관 기능 중 공간(시설)에 중요도	3.86	4.10

〈표 15〉 사서의 콘텐츠, 서비스, 공간의 중요도 차이에 대한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표

분산원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유의확률(P)	부분에타제곱
피험자(S): 응답자	138.562	132	1.050			
처치(C): 도서관3요소	5.938	2	2.969	41.90	.000	.241
오차(CS)	18.708	264	.071			
전체	163.208	398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콘텐츠가 미래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에 있어서 공간이나 정보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6〉 참조).

이용자 집단의 경우에는,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 수행 결과, 콘텐츠, 정보서비스, 공간에 따른 중요도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F=21.758$, $p<0.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이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 t-test(Paired t-test)를 실시한 결과, 콘텐츠와 서비스를 비교할 경우 콘텐츠가 정보서비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텐츠와 공간을 비교했을 경우에도 콘텐츠가 공간에

비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서비스와 공간에 대한 중요도를 비교한 결과, 정보서비스가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이를 종합해 보면, 콘텐츠가 미래 공공도서관 발전 방향에 있어서 공간이나 정보서비스에 비해 보다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미래 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여러 연구와 보

〈표 16〉 사서의 콘텐츠, 서비스, 공간의 중요도 차이에 대한 paired t-test 분석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	하한	상한	t	자유도	유의확률
콘텐츠 vs. 서비스	0.255	0.369	0.032	0.192	0.318	7.967	132	.000
서비스 vs. 공간	0.008	0.410	0.036	-0.063	0.078	0.215	132	.83
콘텐츠 vs. 공간	0.263	0.348	0.030	0.203	0.322	8.712	132	.000

〈표 17〉 이용자의 콘텐츠, 서비스, 공간의 중요도 차이에 대한 일원 반복측정 분산분석표

분산원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유의확률(P)	부분에타제곱
피험자(S): 응답자	189.257	188	1.007			
처치(C): 도서관 3요소	4.812	2	2.406	21.758	.000	.104
오차(CS)	41.518	376	.111			
전체	235.587	566				

〈표 18〉 이용자의 콘텐츠, 서비스, 공간의 중요도 차이에 대한 paired t-test 분석표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	하한	상한	t	자유도	유의확률
콘텐츠 vs. 서비스	0.146	0.398	0.029	0.088	0.203	5.029	188,000	0.000
콘텐츠 vs. 공간	0.222	0.506	0.037	0.149	0.295	6.031	188,000	0.000
서비스 vs. 공간	0.077	0.499	0.036	0.005	0.148	2.112	188,000	0.036

고서를 통해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라는 사회의 주도적인 이슈에 대응하여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들 수많은 논의에서는 정작 도서관이 무엇인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최신 정보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이를 활용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존재 의미와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용자와 사서들이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의 공공도서관 운영 방향을 콘텐츠, 정보서비스, 시설 및 공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외에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최신 정보기술, 사서의 역량을 추가하여 미래 공공도서관에 대한 사서와 이용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미래 공공도서관으로의 발전과 관련해서 사서 집단과 이용자 집단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콘텐츠가 미래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 집단과 사서 집단 모두에서 공공도서관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래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전통적인 정보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보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용자 집단과 사서 집단에서는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자 집단은 사서 집단에 비해 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보요구 충족과 정보활동 지원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최신 정보기술 도입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 이용자 집단과 사서 집단 모두 정보기술의 도입보다는 콘텐츠의 이용이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도구의 마련을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이용자 집단과 사서 집단 모두 미래 공공도서관으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미래 공공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 역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활동의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래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서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의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사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확장 등 사서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래 공공도서관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요구는 4차 산업혁명이 주된 화두가 되는 사회 환경에서도 공공도서관이 진화하는 정보기술을 도입함과 함께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신속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진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공도서관이 진화해야 한다는 정보적,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미래 도서관으로 진화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공공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화하는 정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공공도서관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향후 공공도서관이 제공해야 할 정보서비스 모형과 그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김보영, 곽승진 (2017). 대학도서관의 메이커 스페이스 도입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259-279. <http://dx.doi.org/10.16981/kliss.48.3.201709.259>
- 김현오, 김용승 (2020). 최근 국내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12), 69-76. <http://doi.org/10.5659/JAIK.2020.36.12.69>
- 김홍렬 (2017).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조직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21-44. <http://doi.org/10.16981/kliss.48.3.201709.21>
- 노영희 (2014). 차세대 디지털도서관의 발전방향 논의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2), 7-40. <http://doi.org/10.3743/KOSIM.2014.31.2.007>
- 노영희, 신영지 (2021). 자율사물을 활용한 도서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1), 27-54. <http://doi.org/10.16981/kliss.52.1.202103.27>
- 박옥남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 변화와 사서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285-311. <http://doi.org/10.4275/KSLIS.2018.52.1.285>
- 박태연, 한희정, 오효정, 양동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서관 사서의 핵심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27-356. <http://doi.org/10.16981/kliss.49.2.201806.327>
- 이승민 (2020).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재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29-49. <http://doi.org/10.4275/KSLIS.2020.54.1.029>
- 정준화, 박소영 (2021). 디지털 시대를 위한 D.N.A.(data, network, AI)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슈와 논점, 1828.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90&brdSeq=36307>
- 한희정, 박태연, 서진원, 양동민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도서관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73-102. <http://doi.org/10.4275/KSLIS.2018.52.2.073>
- KIET (2016). 미국의 시빅테크(Civic Tech) 동향과 과제.
출처: <http://portal.kocca.kr/portal/bbs/view/B0000204/1926194.do?categorys=4&subcate=65&cateCode=0&menuNo=200375>

- New Media Consortium (2017). The NMC Horizon Report: 2017 도서관 에디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역).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Asemi, A., Ko, A., & Nowkarizi, M. (2021). Intelligent libraries: a review on expert system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 *Library Hi Tech*, 39(2), 412-434.
- British Library (2017, August 30). British library to investigate possibility of a 'single digital presence' for UK public libraries Available:
<https://www.bl.uk/press-releases/2017/august/single-digital-presence-announcement>
- CTG University at Albany (2018).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engaging citizens in smart, inclusive and connected communities. Available:
https://ctg.albany.edu/media/projects/pdfs/IMLS_Report_Oct31.pdf
- Gul, S. & Bano, S. (2019). Smart libraries: an emerging and innovative technological habitat of 21st century. *The Electronic Library*, 37(5), 764-783.
<https://doi.org/10.1108/EL-02-2019-0052>
- Suen, R. L. T., Chiu, D. K. W., & Tang, J. K. T. (2020). Virtual reality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deployment experience in Hong Kong. *The Electronic Library*, 38(4), 843-858.
<https://doi.org/10.1108/EL-05-2020-011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an, H. J., Park, T. Y., Suh, J. W., & Yang, D. M. (2018). A study on establishment strategies toward the future libra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73-102.
<http://doi.org/10.4275/KSLIS.2018.52.2.073>
- Jung, J. H. & Park, S. Y. (2021). Current status and tasks of D.N.A.(data, network, AI) policies for digital age. *Issues and Arguments*, 1828.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90&brdSeq=36307>
- KIET (2016). Civic Tech trends and challenges in the US. Available:
<http://portal.kocca.kr/portal/bbs/view/B0000204/1926194.do?categorys=4&subcate=65&cateCode=0&menuNo=200375>
- Kim, B. Y. & Kwak, S. J. (2017).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makerspace at academic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259-279.
<http://dx.doi.org/10.16981/kliss.48.3.201709.259>

- Kim, H. O. & Kim, Y. S. (2020). The change of recent public libraries' space organization in South Korea.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6(12), 69-76.
<http://doi.org/10.5659/JAIK.2020.36.12.69>
- Kim, H. R. (2017). A study on policy for public libraries of the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21-44.
<http://doi.org/10.16981/kliss.48.3.201709.21>
- Lee, S. M. (2020). Reconsideration of the roles of librar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29-49.
<http://doi.org/10.4275/KSLIS.2020.54.1.029>
- New Media Consortium (2017). *The NMC Horizon Report: 2017 Library Edition*. KERIS translated. Daegu: KERIS.
- Noh, Y. H. & Shin, Y. J. (2021). A study on the library activation plan using autonomous objec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2(1), 27-54.
<http://doi.org/10.16981/kliss.52.1.202103.27>
- Noh, Y. H. (2014). A study suggest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ext generation digit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2), 7-40.
<http://doi.org/10.3743/KOSIM.2014.31.2.007>
- Park, O. N. (2018). A study on the changes of libraries and directions of librarian education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285-311. <http://doi.org/10.4275/KSLIS.2018.52.1.285>
- Park, T. Y., Han, H. J., Oh, H. J., & Yang, D. (2018). A study on the librarian's key tasks of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327-356. <http://doi.org/10.16981/kliss.49.2.201806.327>